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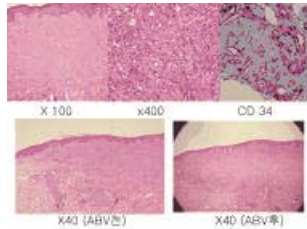
— F-303 —

HIV negative Kaposi's Sarcoma에서 ABV 치험 1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내과

*이재명 · 이상혁 · 범선희 · 홍석호 · 고석찬 · 김운정 · 윤성민

서론 : Kaposi's sarcoma가 AIDS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HIV 음성인 Kaposi's sarcoma의 보고는 없어 본원에서의 치험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표면이 건조한 불규칙하게 융기된 피부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43세 남환으로, 1996년 뇌출혈 이후 발바닥에서 처음 나타났고, 점차 심해져 타병원에서 혈관암이란 진단 받은 뒤 4번째, 5번째 왼쪽 발가락을 절단하였으나 점차 악화되어 양측 팔다리 절단을 권유 받은 상태에서 민간요법만 하며 지내오던 중, 양측 손등과 발등에 상기 피부병변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본원 외래 통해 입원하였다. 본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상 Kaposi's sarcoma로 진단되어, 혈액검사상 HIV/HHV8 (-/-)로 일반적 항암화학약물요법에 호전보일 것을 기대하고, ABV chemotherapy(05.08.04~06.05.04)를 시행하였다. 항암치료 이후 임상양상 호전보여, 사지 절단은 필요없게 되었고, 항암요법에 따른 별다른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 Kaposi's sarcoma는 대개 HIV 양성환자에서 발병되며 항암요법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경향보이나, HIV 음성환자에서 원발성으로 발생한 경우 고식적인 항암요법만으로도 치료경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 F-304 —

모발 검사를 통해 진단한 만성수은중독 암환자를 selenium으로 치료한 1례

서울의료원 내과

*홍석호 · 이재명 · 이상혁 · 범선희 · 이호준 · 김성두 · 윤성민

서론 : 만성 수은 중독은 유기수은 또는 무기수은의 노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성격변화와 기도진전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본원에서 일부 암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모발검사상 우연히 진단된 만성 수은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증금속 독성의 경감 효과가 있는 selenium을 투여하고 추적 관찰상 임상양상이 호전된 1례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56세 남자환자로 2007년 2월 16일 식도암으로 수술 시행 후 본원 혈액종양내과 전과된 자로 증금속 및 미량원소 혈중 농도에 대하여 침습적 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모발 검사상 수은의 농도가 0.84로 증가되어 있었고 혈중 수은 5.84ug/dL, 요중 수은 1.2ug/L로 확인되었다. 평소 참치 등의 다량어를 즐겨 먹었고 치아에 두 개의 아말감을 갖고 있었다. 평소 성격이 예민한 편이며 간헐적인 두통이 있었다. 2006년에는 수부 진전으로 본원 신경과에서 신경전도검사도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위의 **결과 :** 와 병력을 바탕으로 만성 수은 중독으로 진단하고 selenium 치료를 시작하였다. 3월 9일부터 selenium 6cc(300ug)을 매일 경구복용 하였고, 이후 흡수율을 높이고자 6월 2일부터 26일간 selenium 10cc(500ug)를 정주하였다. 추적 검사상 혈중 수은 농도는 6월 12일 3.2ug/dL, 24시간 요중 수은농도는 6.4ug/day로 측정되며 6월 6일 시행한 모발검사에서도 0.56로 감소된 소견 보여 수은 중독은 호전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퇴원하여 외래에서 주3회 selenium 10cc(500ug)을 정주주입하며 통원치료 하고 있으며, 마지막 추적검사상 혈중 수은농도 5.97ug/dL, 요중 수은 농도 4.79ug/dL로 정상소견을 나타내었다. 임상양상도 두통은 호전되었고 진전 등의 신경학적 증상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결론 :** 만성 수은 중독은 혈액 및 소변 농도검사의 변동값이 크고, 농도와 증상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모발 검사는 최근 수개월 간의 정보를 간직하므로, 만성 증금속 노출에 대한 검사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Selenium은 항산화효과, 항암효과로 인하여 최근 대체 요법으로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데 증금속 중독에 대한 치료제로도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